

여성운전사들 택시· 시내버스 취업 쉬워진다

사고율 적은 여성 더 선호, '경력2년' 자격요건 완화

택시,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에 진출하려는 여성운전사들의 취업이 빠르면 내년부터 쉬워지게 된다.

이는 그동안 여성의 택시, 버스 등 영업용차량에 대한 취업기회를 사실상 제한해 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자격요건 중 <운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는 '제한조항'의 폐지 검토가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이 폐지되면 심각한 운전사 부족난을 겪고 있는 택시, 시내버스업계에도 일대 '우면파워'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내 여성운전사 수는 택시의 경우 전체 4만8천여명 중 0.5%에 불과한 2백61명이며 버스는 1만7천여명 중 0.1%에 해당하는 33명만이 여성으로, 다른 직종의 여성 진출에 비해 극히 저조한 취업실태를 보여 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현실여건상 여성들은 2년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실무경력을 갖기 힘들었다. 영업용차량에 취업하고 싶어도 이 조항에 걸려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운전사부족난의 해소에 따르는 승객서비스 및 남녀고용기회의 실질적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제한요건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교통부에 이의



폐지를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이 조항을 폐지하는 대신 시내 주행과 고장응급처리 등 영업용차량 운전자로서 필수적인 자격시험을 실시해 버스 등 영업용차량운전사 자격을 여성들에게 부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간 여성들의 운수업계진출이 유난히 힘들었던 것은 '운전직종의 인식' 탓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사실상 운전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라 해도 개인자가용이나 공공기관 일반기업체의 운전사로 취업하기 어려워 이 조항을 충족시킬 수 없었으며 또한 무엇보다 운전직종이 일의 성격상 대중의 안전과 정확한 배차시간을 맞춰야 하는 고도

의 스트레스, 남성들도 하기 힘든 상당히 '거친 직업'으로 인식되면서 여성의 일로는 적합치 않다는 편견도 크게 작용해 왔다.

그러나 막상 운수업계 경영자나 여성운전사들은 "여성이 오히려 섬세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사고율이 적고 승객들로부터의 호응도 높아 일정 적응훈련을 거치기만 하면 운전이라 해서 여성이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성진출을 반기고 있다.

가장 많은 여성운전사를 고용하고 있는 삼선버스 유준하 상무는 "경력2년 이상의 조항 폐지로 많은 여성들이 영업차량에 취업한다면 회사측으로선 대환영"이라며 "희망자만 있다면 당장 일정 실습을 통해 조금은 힘이

덜 드는 한가한 노선에 투입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크고 작은 사고가 과신이나 덤벙거리는 데서 발생하는 만큼 여성들은 차분하게 일하고 결근률도 적어 운전사인력난을 덜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한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임성길 기획부장은 "예전하고 달리 지금은 자신의 직업관만 확고하다면 여성이라고 못할 일이 없다. 운전 역시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으며 남성은 거친 반면 여성은 섬세한 특성을 살려 더 잘 할 수 있다"며 그간 경력을 따졌던 것은 수송단위가 높고 안전도가 크게 요구되는 영업차량의 특성상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이제는 여성들이 숙련도를 체득할 수만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여성운전사의 진출에 대한 이같은 긍정적 반응과 여성선호는 택시업계도 마찬가지다.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택시의 경우 운전사들이 26일만 근무하면 부족인원은 훨씬 줄어 들 수 있지만 대개 남성기사들의 결근률이 높아 지금은 1인 19.8일의 근무에 그치고 있다. 여성들의 취업이 늘어나면 부족분을 메꾸고 사고율이나 결근률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선버스에서 5년간 일해 오고

있는 권오순(35) 씨는 "여성운전사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남성중심으로 돌아가는 업무체계가나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여성들에게 유리하게 될 실질적 기반이 될 것이다. 하루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능력 여부는 사실 일정 숙련도로 커버할 수 있다"며 여성들의 많은 취업을 희망한다고 말한다.

운수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주들이 여성운전사를 특히 선호하는 것은 여성들의 사고율이 남성에 비해 월등히 적고 승객에 친절해 호응도가 높은 점, 민방위나 예비군훈련 등으로 인한 결근율도 거의 없다는 여성 특유의 이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각한 인력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도 여성들의 운전직에의 진출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여성들의 인식 변화와 준비, 운수업계 전체의 문제로 지적되는 낮은 임금체계의 해결, 여성들이 보다 쉽게 운전할 수 있는 파워핸들, 자동변속기 등이 부착된 차량의 구입 같은 실질적인 여건의 혁신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버스업계는 3천여 명의 운전사가, 택시경우는 1만8천5백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혜숙 기자)